

클래식 명곡 산책 - 19 - 바이올린 협주곡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음악 듣기
bitly.kr/LLZw18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피아노 협주곡과 함께 가장 많이 작곡된 협주곡은 바이올린 협주곡일 것입니다. 바이올린은 고음의 화려한 소리와 빛나는 기교로, 남다른 매력을 가진 음악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낭만시대에 와서는 그 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베토벤이 단 한 곡의 완벽한 바이올린 협주곡을 남긴 후, 후배 작곡가들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파가니니, 비외탕 등 바이올리니스트-작곡가들이 기교적인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거장들이 남긴 몇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들이 주로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대표적인 19세기 바이올린 협주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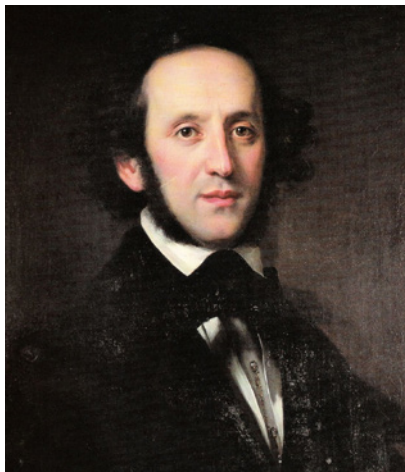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모습 / 출처 : limelightmagazine.com.au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번호61 (1806)

Ludwig van Beethoven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61

베토벤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고향인 본에서 빈으로 영구히 이주한 1792년에도 이미 3년째 바이올린 협주곡과 씨름 중이었죠. 그러다 썼던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롭게 다시 써서 1806년에야 완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빈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자필 원고에는 ‘빈 극장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지휘자인 프란츠 클레멘트와의 우정을 위한 협주곡, 1806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지만, 초연 당시에는 클레멘트(Franz Clement : 1780~1842)의 준비 부족으로 그리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주되지 못했는데요,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 곡이 걸작임을 알고 있음에도 선불리 나서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13세의 요제프 요아힘(Joseph Joachim : 1831~1907)이 멘델스존과 슈만의 지휘로 수차례 연주하면서 비로소 그 진가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자주 연주되고 있는 카덴차(악장이 마무리되기 전에 연주자가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작곡가가 카덴차를 작곡할 수도 있지만, 연주자가 직접 작곡하여 연주하도록 악보의 이 부분을 비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는 요아힘에 의한 것으로, 181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을 초연할 즈음의 멘델스존
/ 출처 : wikipedia.org



페르디난트 다비트 / 출처 : josephjoachim.com

펠릭스 멘델스존(1809~47) :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번호64 (1844)

Felix Mendelssohn-Bartholdy :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 64

멘델스존은 친구이자 당대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었던 페르디난트 다비트(Ferdinand David : 1810~73)를 위해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다비트는 독일 고전 시대의 선구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루이 슈포어(Louis Spohr : 1784~1859)의 제자였으며, 1836년부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843년부터는 멘델스존이 설립한 라이프치히 음악원 교수로 있었죠. 멘델스존은 1838년 7월 30일에 쓴 편지에 “겨울에 자네를 위해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려고 하네, 마단조의 선율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괴로울 지경이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 초고도 보여주었습니다. 다비트는 그 곡을 보고 “걸작이 될 것 같네. 바이올린 협주곡은 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협주곡은 베토벤의 것뿐이지. 하지만 이제 두 개가 되겠어.”라고 격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성까지는 무려 6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완성 이듬해인 1845년 3월 13일에 다비트의 독주와 멘델스존의 지휘로 게반트하우스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1833~97)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번호77 (1878)

Johannes Brahms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77

브람스는 1878년 여름에 바이올린 협주곡을 완성했습니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할 즈음의 베토벤 / 출처 : wikipedia.org



요제프 요아힘 / 출처 : josephjoachim.com



만년의 브람스 / 출처 : wikipedia.org

다.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제프 요하임을 위해서였죠. 브람스는 그가 존경해마지않았던 베토벤의 협주곡을 모델로 삼았으며(라장조로 작곡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면서 요아힘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1879년 1월 1일 라이프치히에서 요아힘의 독주로 초연되었으며, 그 후에도 요아힘의 의견대로 수정을 지속했죠. 초연 당시는 호평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베토벤과 멘델스존의 협주곡과 함께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1악장은 관현악단의 서주가 처음으로 장중하게 시작되며 곧이어 바이올린이 열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카덴차는 요아힘에게 맡겼는데요, 오늘날에는 요아힘의 카덴차뿐만 아니라 프란츠 크라이슬러의 카덴차도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제2악장은 브람스의 내면적 정신세계가 깃들여져 있으며, 제3악장은 헝가리 춤곡풍의 론도 악장으로서 헝가리 태생의 요아힘에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격렬한 클라이맥스로 장대하게 끝을 맺습니다.

막스 브루흐(1838~1920) :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사단조, 작품번호26 (1866)

Max Bruch : Violin Concerto No. 1 in G minor, Op. 26

브루흐는 19세기 후반 정통 독일음악의 계승자로 인정받는 매우 중요하고 높은 수준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은 달콤한 멜로디와 자유로운 형식으로 누구나 친근감을 느낄 수 있죠. 그는 세 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했는데요, 특히 1번은 독주의 화려한 기교와 아름다

운 선율이 잘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의 협주곡과 함께 매우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브루흐는 19세 때인 1857년 고향인 쾰른에서 이 곡의 작곡을 시작했지만, 무려 9년이나 지난 1866년 28세 때에 비로소 코블렌츠에서 완성했습니다. 초연은 4월 24일에 오토 폰 쾰니히슬로(Otto von Königslo)의 바이올린과 브루흐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죠. 이후 요제프 요아힘의 도움으로 개정되어 1868년에 요아힘에 의해 브레멘에서 연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출신의 거장이었던 파블로 데 사라사테(Pablo de Sarasate : 1844~1908)가 연주하면서, 이 곡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죠.

전통적인 3악장으로 구성되어있음에도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는 매우 자유스러운 소나타 형식입니다. ‘전주곡’이라는 부제가 형식적으로 자유로움을 암시하죠. 팀파니와 목관이 조용히 서주를 연주한 후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제1주제는 조금 더 후에, 바이올린이 힘차게 제시합니다. 제2주제는 관현악단의 현악기와 대등하게 얹히면서 아름답게 전개됩니다. 이 주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다가 재현부를 거쳐 조용한 분위기에서 다음 악장으로 쉽 없이 이어집니다.

2악장 ‘아다지오’는 자유로운 가요형식으로, 브루흐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악장입니다. 단순하고 맑은 선율은 서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깊은 감명을 주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환상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장중한 멋이 있습니다.

3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는 소나타 형식입니다. 집시음악의 영향을 받은 듯 선율과 리듬이 정력적이고 화려함

막스 브루흐 / 출처 : wp.org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할 때의 코테크와 차이코프스키 / 출처 : wikipedia.org



아돌프 브로드스키 / 출처 : jstor.org

니다. <치고이너바이젠>을 작곡한 사라사테가 이 곡을 연주한 것은 바로 이 3악장의 매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표트르 차이코프스키(1840~93) :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번호35 (1878)

Pyotr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19세기 후반 러시아에서는 동성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법으로 금지되면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감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성과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요, 차이코프스키의 동성 애인이었던 블라디미르 실로프스키도 세간의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1877년에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차이코프스키는 그해 여름에 자신을 짝사랑하는 제자 밀류코바와 충동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이 행복할 리가 없겠지요. 차이코프스키는 결국 6주 만에 집을 뛰쳐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선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동생의 집에 들렀다가 이듬해인 1878년에 스위스의 제네바 부근 레만 호수에 있는 클라렌스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이곳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제자였던 바이올리니스트 이오시프 코테크(Iosif Kotek : 1855~1885)가 찾아왔습니다. 코테크는 에두아르드 랄로(Eduard Lalo : 1823~92)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에스파냐 교향곡> 악보를 갖고 있었는데요, 차이코프스키는 코테크와 이 곡을 연주하면

서 큰 감동을 받았습시다. 그는 자신의 후원자였던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랄로는 ... 새로운 음악적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불같은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려고 합니다.”

차이코프스키는 <바이올린 협주곡>의 초안을 11일 만에, 전체 총보를 2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 테크닉에 대해서 코테크의 조언을 반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작곡했을 때 동료들로부터 받았던 서툰다는 혹평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지난달 ‘방송과기술’을 참조하세요.) 하지만 초연까지의 험난한 여정은 그다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선 코테크가 초연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이 곡을 초연하면 차이코프스키와의 동성에 관계가 들쭉날쭉 수 있고, 또한 만약 이 곡이 실패한다면 이제 시작하는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코프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교수였던 레오폴트 아우어에게 초연을 의뢰했습니다. 아우어는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곧 초연을 취소했습니다. 독주 파트에 바이올린의 특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작곡가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아우어와 같은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연주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다니! 나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이 곡은 빛을 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었구나.”

하지만 신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879년에 레오폴드 담로쉬가 뉴욕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연주하였으며, 1881년에는 <우울한 세레나데>를 초연했던 아돌프 브로드스키(Adolph Brodsky : 1851~1929)에 의해 이 곡의 온전한 초연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차이코프스키가 브로드스키에게 초연을 의뢰한 것은 1879년이었습니다. 브로드스키는 고심 끝에 이 곡에 확신을 가지게 되기까지 2년이 걸렸던 것이죠. 빈에서 열렸던 초연에서 브로드스키는 갈채를 받았지만, 독일의 유명한 비평가 한슬리크는 “러시아의 냄새가 난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작곡가의 작품에서 러시아의 향취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브로드스키는 이 곡을 계속 연주하여 널리 알렸으며, 덕분에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표준 레퍼토리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코테크나 아우어보다는 브로드스키와 같은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